

합격기
(2012년(제56회)행시 재경직 합격)

“누구에게나 시련은
찾아온다. 그렇지만
시련에 대처하는 자세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박 세 응

- 1985년 생
- 전주 해성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예정
- 2012년 제56회 행시 재경직 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도 5급 공채 재경직렬에 합격한 박세웅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친한 후배를 통해 합격 수기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실제로 글을 쓰겠다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저는 3순환으로 고시공부를 시작했고, 2차 직전 한 달 남짓 심한 불면증을 겪기도 하는 등 다른 합격생들과 많이 다른 길을 걸어왔기에 수험생 분들이 참고할 부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제 글을 읽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여 결국 글을 써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걱정이 좀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게다가 고3 수능에 잠을 자지 못하고 채수를 하게 된 경험 때문인지 그 이후에 항상 잠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본 피셋을 제외하면 두 번째 피셋부터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시험을 치렀고, 2차 시험을 한 달 앞두고부터는 2~3시간씩 누워 있어야 간신히 잠이 들어 불면증 때문에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2011년에 두 번째로 2차 시험을 치르고 나서는 다음 해에 또 한 달 이상 불면증을 겪을 것이 두려워 시험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불면증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긴 했지만, 불면증으로 인한 손해 이상으로 제가 좀 더 노력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 때 이와 같은 저의 약점을 인지 할 수 있었고,

세 번째 시험에서는 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좀 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마지막 한 달 동안에 (불면증으로 인해)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사전에 공부를 해 놓자는 결심을 하였고 그대로 실천을 하였습니다. '만일 외워야 될 것이 있으면, 시험 한 달 전까지 완벽하게 외워두고, 풀어봐야 할 게 있으면 한 달 전까지 미리 풀어두자' 이것이 불면증이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제 마지막 시험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누구나 목표를 이루지 못한 핑계를 한 가지 이상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험의 합격·불합격은 이러한 핑계를 그대로 핑계거리로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핑계거리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가에 따라서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II. 시기별 공부 방법

1. 2009년 8월 ~ 12월

군대를 다녀온 후 09년 여름방학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합격한 선배를 만나 수험생활에 대해 문의하였고, 다양한 합격수기를 읽으며 수험생활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학기 기간에는 인터넷 강의와 학교 수업을 병행하였는데, 저는 학점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편이었고, 인터넷강의를 들으면서 예습복습을 병행하였기에 행정법 예비순환을 간신히

끝낸 시점에서 2학기를 마쳤습니다. 다만, 학교 수업으로 재정학과 국제수지론을 수강해서 약간이나마 2차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2. 2010년 1월 ~ 1차 시험

초시를 치르는 동기·후배들과 스터디를 꾸렸고, 아직 1차에 대한 압박이 크지 않아 2월 6일이 시험임에도 1월이 되어야 1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행시와 입시의 기술 4개년 분 중 하나를 시간에 맞춰 풀고 바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오후·저녁시간에는 당일 풀었던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각 과목별로 기본서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특히 선배에게 자료해석 강의가 도움이 된다는 조언을 받아서 자료해석 기본강의만 따로 인터넷으로 수강하였습니다. 피셋 한회, 기본서 세권을 조금씩 풀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니 하루가 금방 지나갔고, 시험을 보는 주에만 하루에 세 개씩 모강을 풀었습니다.

3. 2010년 2월 ~ 2차 시험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본 덕분인지 운 좋게 좋은 성적으로 피셋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계획으로는 2차 준비기간에 1순환 강의를 수강할 예정이었으나, 3순환을 들으며 목숨걸고 해보라는 선배의 조언과 제 욕심 때문에 3순환 강의를 바로 수강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고, 오전 영상반을 끊어서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그래도 경제학부 출신인 덕분인지 경제 3과목은 힘겹게나마 수업을 따라갈

수 있었지만, 예비만 들었던 행정법과 아무런 지식도 없었던 행정학을 수강할 때는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만, 행정법은 책을 찾아서라도 어떻게든 답안을 채우고자 노력했고, 행정학은 평소에도 어떻게든 저만의 글을 써보고자 노력하여 실제 시험에서 간신히 답안을 다 채우긴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실력이 미숙했던 탓인지 커트라인 57.3에 평균 6.5점 부족한 점수로 탈락했고, 다음 번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제가 보완해야 할 것들을 발견하여 다음 시험을 대비해 나갔습니다.

4. 2010년 7월 ~ 12월

제 욕심으로 3순환으로 공부를 시작하긴 했지만, 3순환 기간에도 제가 기본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를 치르고 나서는 다시 1순환부터 천천히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차를 끝내고 10일정도 휴식을 치른 후에는 김진욱의 경제학부터 1순환 강의를 순서대로 수강하였습니다.(경제학 7~8월, 행정법 8~9월, 행정학10~11월, 재정학·국제경제학 12월) 다만, 10년도에 강의를 시작한 박경효 선생님의 행정학 강의만 예비와 1순환을 연달아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행정학 서브노트의 필요성을 느꼈기에, 행정학은 예비를 마치고 1순환을 듣는 과정에서 서브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행정학 공부에는 특히 2달 정도 되는 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를 같이 준비했던 후배들과 함께 2차 스터디를 조직하였고, 경제학·행정법·행정학 순으로 50점씩 기출문제의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이 스터디에서는 저의 주도로 상대방을 공격적으로 지적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갔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5. 2011년 1월 ~ 2월

두 번째 1차 시험 날은 2월 26일로 상당히 늦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1월 2일부터 바로 스터디를 시작하였습니다. 스터디 구성원들과 스터디 진행 방식은 작년과 비슷했지만 준비기간이 20일 가량 더 길어서 과목별로 강사들의 모강을 10회분 정도는 더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각 과목별로 기본서를 하나씩 선택하여 총 세권을 더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차 시험에는 전날 갑작스레 불면증을 겪어 두 시간 정도만 간신히 눈을 붙이고 시험을 보게 되었으며, 멍한 와중에 힘들게 언어를 풀어 언어를 심하게 망쳤습니다. 그래서 불합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점심은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만 먹었고, 쉬는 시간에 초콜릿을 충분히 먹으며 마지막 힘을 전부다 쏟아 냈습니다. 다행히 채점결과 언어는 67.5점이 나왔으나, 제가 사력을 다해 풀었던 자료·상황에서 각각 85점을 맞아 다행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몸이 힘든 상태여도 정신만 차리면 어떻게든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6. 2011년 3월 ~ 6월

2011년에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점은 2차 시험을 완전히 혼자서 준비한 것입니다. 물론 점심을 같이 먹는 친구는 있었지만, 생활패턴이 완전히 달랐고, 3순환 때 학원에서 쓰는 답안을 제외하고는 따로 답안스터디를 하지도 않았으며, 공부를 같이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다보니 제 부족한 점을 발견하기도 어려웠고, 4월에 들어서서는 제 자신이 많이 헤이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시험을 한 달 앞두고는 갑작스레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몸은 매우 피곤한데도 눕기만 하면 잠을 자는데 2~3시간씩 시간이 걸리고, 낮잠도 오질 않아서 몹시 힘들었습니다. 버티다 못해 수면유도제를 먹기도 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수면유도제도 사실상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져 내렸고, 실제 2차 시험 첫날 12시에 누웠음에도 누운 채로 밤을 새버려 행정법에서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행히 이후에는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안정을 찾고, 대부분 커트라인 이상의 점수를 얻었지만, 행정법에서의 심각한 결과를 극복하지 못하여 평균 0.5점 차이로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7. 2011년 7월 ~ 12월

2011년에 2차 시험을 치르고 나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불면증을 겪을 것이 우려되었고, 그 한

달 간의 고통이 계속 저를 짓눌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제가 고2 때부터 목표로 한 것이고, 아직은 제 모든 것을 쏟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한 번만 제 모든 힘을 쏟아서 다시 해보자 라는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는 불면증에 대비하여 시험 한 달 전까지 외울 것은 완전히 외우고, 풀어볼 것은 다 풀어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다섯 과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행정법을 보완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우선 행정법 강사를 바꾸어 2학기 기간 동안 학교수업을 들으면서 행정법만 예비/1순환을 다시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동 기간에 기출스터디에 들어가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혼자 공부하는 것의 문제점을 절감했기 때문에 10월 초쯤 친분이 있는 누나와 함께 생활스터디를 꾸리고 3명을 더 모아 같은 독서실 같은 층에 자리를 잡고 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희 스터디는 서로 상당히 친밀하게 지내면서도 공부할 때는 확실히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듬해 2차를 치를 때까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8. 2012년 1월 ~ 2월

이전 시험을 두 번다 합격하긴 하였지만, 불면증 때문에 떨어질 뻔 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시험인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다. 준비기간은 약 두 달이었는데 처음 4주는 이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루에 1회씩만 기출을 풀었지만 남은 기간에는 3-2-3-2-3-2 방식으로 일주일에 5회분씩을 풀어 상당히 많은 모강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고는 각자 개별적으로 검토를 한 후 다음날 문제풀이 후에 전날 문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하여 시간을 최대한 아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언어, 자료의 기본서와 이진우의 법률문제특강을 더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역시도 간신히 두 시간 정도 자고 시험을 봤습니다. 역시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시험을 봤던 터라 깨끗하게 버텼으며, 고른 점수로 무사히 1차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9. 2012년 3월 ~ 6월

2012년은 11년 2차 시험 때 가장 부족하다고 느꼈던 행정법을 보완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6월 초까지 시험 준비를 마치기 위해 3순환 때 인터넷강의로 시간을 아끼고 이동시간이나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등 전력을 다했습니다.

생활스터디에서 8시 출책/ 11시 퇴책을 하였지만, 보통 12시까지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약 40분, 저녁시간 약 40분, 낮잠 10분정도를 제외하곤 따로 휴식 없이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답안스터디는 따로 재경직 부분과 함께 50점 답안 스터디를 진행하였으며, 4순환까지 이 스터디를 꾸준히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녁

먹고 난 뒤 50점 답안을 써서 하루에 100점씩 답안을 썼습니다.

그리고 보통 순환중인 각 과목은 강의 진도에 맞추어 예습복습을 하며 공부를 했지만, 대개 11시 정도까지 그날 공부를 마쳤고 나머지 1시간은 사례를 따로 한~두 개씩 봤습니다. 행정법 공부기간에는 행정학 사례를 봤고, 나머지 4과목 기간에는 작년에 가장 부족하다고 느낀 행정법 사례를 봤습니다. 특히 사례를 볼 때 30분정도 시간을 들여 문제를 보고 목차를 잡은 뒤 예시답안과 비교하여 검토하는 방식으로 계속 행정법과 행정학의 감각을 유지해나갔습니다.

그리고 6월초까지 판례·정의암기, 중요기출문제 풀이 등을 다 마쳐놓았기 때문에 6월 달에는 좀 더 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번 해에는 작년만큼은 불면증이 심하지 않아서 4순환 기간에도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었고, 4순환 기간이 짧긴 했지만 각 과목별로 2회독씩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2차 시험 기간에는 불면증에 시달리긴 했지만, 이미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고, 3·4순환 기간에 각 과목별로 전날 볼 분량을 최소화 해놔서 전년도만큼 고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재정학 한 문제를 통째로 날리는 위기가 있었지만, 마음을 잘 추스르고 행정학 시험에 최선을 다해 시험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Ⅲ. 과목별 공부방법

1. 제1차 시험

저는 1차 시험 준비의 경우 기본서 풀이를 제외하곤 전부 스터디를 통해 준비해 나갔습니다. 3년 모두 1월에 1차 스터디를 시작했으며, 저는 기본서도 풀었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거의 1차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기출문제 1달 모강 1달 정도로 스터디를 진행 하였으며, 매년 평균 4~5점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항상 철저하게 1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각 과목별로 매년 기본서를 한 권씩 풀었으며, 기본서를 스터디 기간 전에 미리 풀기보다는 같은 기간에 스터디와 별개로 병행하는 방식으로 해나갔습니다.

특히 저는 1차의 경우 11년에 언어 점수가 67.5가 나와서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논리 관련 학교 수업을 듣기도 했고, 고등학교 윤리교과서를 읽거나 기본서를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합격이후에 공부과정을 돌아보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 부분은 스터디의 리뷰 과정에서 어려웠던 문제의 답을 도출한 과정을 솔직히 공개하고, 그에 대해 다른 스터디원들이 서로 굉장히 비판적으로 평가해준 것입니다. 특히 다른 스터디원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제 답의 도출 과정에 대해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해 보았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분석적인 시각을 상당히 제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12년에는 90점까지 1차 점수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와 상황은 언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우선 자료 같은 경우는 신현의 기본강의를 듣고 확실히 복습한 뒤, 기출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출제자의 시각에서 어

떤 식으로 함정을 봤는 지 고민해 본 것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제가 문제를 잘 풀다가 보다는 문제를 걸러내는 스킬이 좋은 편이었고, 실제 시험에서도 못 푼 문제도 꽤 있긴 했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문제를 과감하게 제쳐두고 잘 넘어간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2. 제2차 시험

(1) 공통

전 1순환 기간에 1주 2회 시험을 제외한 문제풀이는 기출문제를 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과목의 기출문제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어려웠던 문제들을 따로 추려 3순환 기간에 다시 한번 복습하였습니다.(그리고 일부는 4순환 기간에 다시 보기도 하였습니다)

3순환 기간에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수업의 모의고사 50점은 제 스스로 작성하였고, 다른 강사를 한명 골라 스터디에서 50점씩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순환 때 풀었던 문제 중 중요한 문제를 체크해 두었다가 4순환 기간에 매일 일정 분량씩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4순환 기간에는 시험 과목 순서에 맞추어 2회독을 하였고, 답안은 스터디에서 하는 100점 스터디만 진행하였으며, 그 외에 다른 100점 문제를 목차만 잡아 풀었습니다.

그리고 2차 준비기간 동안 보통 8시부터 밤12시까지 공부를 하였고, 잠은 보통 6시간 반 정도를 잤습니다. 또한 전 과목을 인터넷 강의 1.7배속으로 들

어 보통 강의 소요시간은 2시간 정도였고, 그 외 답안작성과 리뷰에 소요되는 시간 3시간 반, 식사를 포함한 휴식시간 1시간 반 정도를 제외하면 평소에 9시간 정도를 개인공부를 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리고 5월까지의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공부했고, 일요일 오전에는 주로 관악산 등산을 하며 체력을 관리했으며, 그 이외시간에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2) 경제학

경제학은 아무래도 분량이 많다보니 김진욱의 자료와 미/거시 Zip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다만, 3년간 매 예비/1순환/3순환마다(2순환은 여유가 없어서 어떤 과목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준구 미시경제학과, 김경수 거시경제학을 한 차례씩 읽었습니다. 보통 예습을 교과서와 Zip을 통해서 하고 복습은 Zip(예비, 1순환 때)이나 3순환 자료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는 주로 진도별로 기출문제와 3순환 자료를 위주로 학습했습니다. 특히 1순환기간에 매번 기출문제 스텐디를 병행했으며 좀 어렵거나 중요하다 싶은 기출문제를 미리 체크해두고 3순환기간에는 그 문제들만 한번 더 풀어보는 방식으로 시간을 절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학은 따로 서브노트를 만들진 않았고, Zip과 자료집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3순환 기간에 위 자료를 보면서 A,B,C로 제 기준에 따라 중요도를 판단하고, 4순환 기간에는 1회독 시에는 Zip과 추려둔 기출문제로 2회독 시에는 자료의 A, B(약 70%)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A, B만해도

양이 많았기 때문에 행정법 시험 3일 전에 미리 B부분을 한번 더 공부하고, 경제학 시험 전날에는 A만 공부하여 전날 볼 분량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경제학파트는 이미 국제경제학으로 상당량을 공부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3) 행정법

제가 가장 어려워하고 고전한 과목은 행정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2차 시험에서 행정법만 커트라인에서 10점정도 부족하여 평균 0.5점차이로 떨어지기도 했고, 그 때문에 두 번째 2차 시험을 치르고 강사를 바꾸었습니다. 기존의 강사님은 목차를 깔끔하게 잘 잡아주시는 장점이 있었지만, 저는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먹고 근본적인 설명을 잘 해주는 강사를 새로이 선택했고, 세 번째 시험을 준비하던 가을에 예비와 1순환을 새로 듣고 이듬해에 3순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결과를 복기하면서 제가 너무 정형화된 문제에 길들여져 있었다는 점과 사안의 포섭이 너무 형식적이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시험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선 3순환 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강사의 교재를 통해 예습과 복습을 하였고, 하루에 100점씩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법 기간이 아니더라도 밤11시~12시 동안에 매일 한 문제씩 사법시험의 기출문제나 다른 강사들이 낸 색다른 문제의 목차를 잡으며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적응력

을 키우고 감을 유지하고자 했으며, 답안 작성 이후에 모범답안의 사안의 포섭을 제 글로 다시 한 번 옮겨 적으며, 사안의 포섭에서 결론의 논리성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판례를 정확히 암기하고 적시하는 것은 행정법 답안의 기초라고 생각했기에 매일 아침저녁으로 집에 왕복하는 길에 혹은 화장실에 앉아서 판례를 암기하였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불면증으로 인해 거의 잠을 자지 못하는데 시험의 난이도도 높았지만, 위와 같은 노력으로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제가 생각하는 바를 답아 낼 수 있었습니다.

(4) 행정학

저는 행정학은 박경효 강사님의 강의를 꾸준히 들었으며, 강사님의 책과 자료를 요약하여 1년 전 1순환에 미리 서브노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3순환 기간에는 주로 강사님의 교재를 위주로 공부를 하고 새로 추가되는 내용을 서브노트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였으며, 4순환 기간에는 제 서브노트를 위주로 하여 2회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는 행정학에서 남들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상당히 고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방안은 저만의 사례집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2번째 시험에서는 자료의 사례 이외의 것을 준비해두지 않았고, 실제 시험에서도 자료의 사례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된 점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문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팔당호 수질

정책협의회, 인터넷 중독대응 범정부협의체와 같은 저만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리하여 남들과 차별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리 서론을 정리해 둔 것 입니다. 저는 항상 서론을 쓰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도 결과는 천편 일률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겨울부터 매일 아침식사 시에 스마트폰으로 신문을 읽으며 주제별로 서론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례를 따로 정리해 두었고, 위 사례를 통해 교수님의 호기심을 끌면서도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적으로 보이는 글 보다는 쉽게 읽히는 글을 쓰기 위하여 노력했고, 스티디원 중 행정학 글을 쉽게 잘 쓰시는 형의 글을 자주 복사하여 형의 서술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하였습니다.

(5) 재정학

재정학은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과목이어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시간을 적게 투입했습니다. 주로 예습은 이준구 교수님의 저서를, 복습은 김진욱 강사님의 자료를 활용했고, 1순환 기간에 개인적으로 기출 문제를 푼 것 외에는 다른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진욱 재정학 강의의 경우 3순환에 모의고사 zip을 중심으로 진도를 나가는데 책이 양도 많은 뿐더러 종종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강사님이 준 자료를 그대로 보며 4순환을 나가긴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순환 때 중복되는 문제와 필요 없는 문제를 다 골라내어 저만의 간추린 목차를

만들어 두었으며, 간추린 자료를 중심으로 4순환을 돌렸습니다.

(5) 국제경제학

국제경제학의 경우 재정학과 마찬가지로 교과서로 예습을 하고 3순환 기간에 모의고사zip의 목차를 정리하여 그 정리된 자료로 4순환을 공부하였습니다. 다만, 국제경제학은 난이도가 만만치 않아 4순환 기간에도 교과서를 한 번 더 읽어 보았습니다.

3. 제3차시험(면접)

면접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2차 합격자 발표가 난 동시에 스터디를 꾸려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은 크게 집단토론과 개별면접으로 나누어지는데, 스터디에서 한 달 동안 매일같이 면접의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스터디원들과의 상호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단점을 고쳐나갔습니다. 또한 개별면접에 대비하여 제 인생에서의 각종 경험들을 끌어내어 이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면접의 준비 과정은 정말 살 떨리고 부담감이 심하지만, 내가 왜 공직에 지원하였으며 공직에서 어떠한 자세로 일할 것인지를 계속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공직 생활을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 전반의 가치관을 잘 정립하고 이를 면접관들에게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V. 나가며

저는 이상적인 공부 방법을 제시하기 보단 제가 시행착오를 겪어온 과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

고 여기에서 지금까지 3년간의 제 수험생활을 돌아보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두 가지만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부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가진 분들일 것 입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색다른 공부 방법을 가지고 계속 겁니다. 물론 선배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선배들의 다양한 공부 방법에 맞추어 자신의 주체성을 잃고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법이 자신에게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핑계를 찾기보다 합격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1차 시험 전날 밤을 뜯는 밤을 새우고, 한 달 동안 심한 불면증을 겪으면서 불면증을 핑계로 시험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현실을 인정하고, 극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여 결국은 합격증을 손에 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생계 문제, 애인 문제 등으로 인해 저보다 더 큰 곤란을 겪으실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핑계를 찾기보다는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누구라도 후회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기도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합격수기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